

## 식생활관련 TV프로그램의 전문가 자문에 대한 제작자 태도와 출연자 구성의 분석

이 정 원<sup>†</sup> · 이 보 경<sup>\*</sup>

충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유한대학교 식품영양학과<sup>\*</sup>

### Analyzing the Producer's Attitudes toward Specialist's Advice and the Panelist Constitution of Nutrition-related TV Programs

Joung-Won Lee,<sup>†</sup> Bokyoung Lee<sup>\*</sup>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aejon, Korea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sup>\*</sup> Yuhan College, Buchon, Korea

#### 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if nutrition-related TV programs give the public correct and useful information, 26 producers(PD) having worked for any one of the nutrition-related TV programs were surveyed by using questionnaire on the attitudes toward seeking an expert's advice about the issues and the panelist's constitution of one typical nutrition-related TV show program broadcasted during the last 5 years was analyzed.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selecting the nutrition-related issues was to satisfy the interests and demands of audiences. Both being motivated by food-related accidents and to educate people for the health promotion were the second ones. In the process of nutrition-related program production, 53.9% of PDs always requested expert's advice, while 46.1% occasionally did. Professors in food and nutrition were regarded as the most proper advisor. Dietitians, physicians and physicians of Chinese medicine were the next in order. The similar pattern were shown in the ranks of specialists actually invited as panelists to the program. Both the speciality and being well-known were firstly considered in the selection of panelists. Experts in food and nutrition were less positive and favorable fo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compared to experts in other areas. The number of programs about food and nutrition broadcasted on the TV show during 1993-1997(July) was 361(about 30%). The total of 1,043 specialists appeared, 2.9 persons per program on the average. Of these, only 12.9% were professors in food and nutrition as well as dietitians. The largest(20.2%) was physicians or medical professors, and 13.6% cooks and 12.6% physicians of Chinese medicine. Of 361 programs 45 were thought to be undesirable on the panelist constitution. Particularly in 19 programs, where nutritionists were not invited, physicians or physicians of Chinese medicine explained diet therapy, food, nutrient or dietary habit.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3(2) : 317-328, 1998)

KEY WORDS : nutrition-related TV programs · PD's attitude · specialist's advice · panelist constitution.

<sup>†</sup>Corresponding author : Joung-won Lee,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20 Kung-dong, Yusong-gu, Taejon 305-764, Korea  
Tel : 042) 821-6841, Fax : 042) 822-8283  
E-mail : leejw@hanbat.chungnam.ac.kr

---

 서 론
 

---

매스 미디어(대중매체)는 현대 사회에서 빠뜨릴 수 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정보전달의 수단이 되었으며, 최근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의 출현은 정보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시공을 초월한 자유로운 상호 의견교환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매스 미디어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구체적인 사실까지 전달해 주므로 동기부여가 강하게 유발되어 광범위하고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이정원 1998; 최정호 등 1995).

식품, 영양 및 건강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도 매스 미디어는 이미 일반인에게 매우 친숙한 정보전달자가 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보건의식행태조사(남정자 등 1995)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과 남녀에 따른 차이 없이 국민의 66.7%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 평소 건강 관련 지식을 얻고 있었다. 연령(15~69세)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매스 미디어를 통한 건강지식의 습득은 특히 20~40대에서 높아 30대는 72.7%나 되었다. 미국에서도 일반 대중의 70% 이상이 텔레비전(TV)과 신문을 가장 많이 접하는 식품관련 정보원으로 꼽았으며 이들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50~60%로 높다(김초일 1998).

매스 미디어의 하나인 TV는 특히 영상과 음향을 함께 전달하고, 직접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TV와 공존하는 느낌을 갖게 하여 친근감의 환상을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방영된 식품영양 정보를 그대로 자신의 지식으로 받아들여 하므로 TV를 통한 영양관련 정보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느 매스 미디어보다도 직접적이며 지대하다. 우리 나라 TV방송국에서는 토크 쇼, 전문가 초청 좌담회 등의 형태로 영양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1997년부터는 KBS를 시작으로 SBS, MBC의 3개 TV방송국이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강한 관심과 욕구를 인지하고 가장 전파력이 강한 저녁 9시 뉴스 시간에 기획보도로써 지속적으로 건강과 영양 정보를 방영하고 있다.

대한영양사회 주관으로 TV를 포함하여 신문, 잡지의 영양 관련 내용을 부분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매스 미디어는 식품영양에 대한 지식을 다양하고 시의적절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건강에 미치는 식생활의 기능,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등 바람직한 정기능적 효과가 매우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대한영양사회 1995~1997).

우리 나라의 TV수상기 보유대수가 현재 가구당 약 1.5대 이상이고 일반인의 평균적인 TV시청시간이 2시간 30분 내지 3시간임을 고려할 때 TV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영향력이 큰 영양교육 매체가 되었다(김기태 1998; Fitzgibbons & Garcia 1977; Goldberg 등 1989). 이에 비례하여 항상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 또한 막대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식품영양 지식을 유포하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김희섭 1996; 대한영양사회 1997). 대부분의 사람은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이에 관한 지식은 적은 편이며 따라서 매스컴에 나타나는 각종 정보와 광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과신하는 경향이 크다. 식생활이나 건강 관련 TV프로그램이 정확성, 균형성,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러한 역기능적 폐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뉴스타트운동이 한때 전 국민의 식생활지침으로 붐을 일으킨 것이 대표적 예라 하겠다. 이에 영양 전문가들은 시청자나 독자에게 영양 지식을 정확하게 알려주어 시청자와 독자들이 광고선전 등 다양한 형태의 영양 정보에 대해서 비판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러한 역기능적 폐해의 원인으로 흥미위주의 제작, 시청율 지상주의, 관련규제 미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들 수 있겠으나, 제작시스템의 비전문성은 무엇보다도 역기능적 영향력이 큰 요인의 하나가 된다(민영목 1997). 제작시스템의 전문성 부족은 주로 TV방송국에 전문기자 또는 전문제작자 제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시 반드시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에게 조언과 참여를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관련 TV프로그램의 출연자 구성과 주제의 전문성에 대한 제작자 태도의 조사를 통하여 TV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영양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TV방송국의 PD(producer 또는 program director)와 기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작자의 식품영양 관련 주제의 전문성에 대한 태도를 설문조사하였으며, 식품, 영양 및 건강에 관한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A' TV방송국

의 연속 기획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방송된 TV쇼에 출연한 전문가의 전공별 구성과 주제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영양관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연구방법

### 1. TV프로그램 제작자의 주제의 전문성에 대한 태도

서울, 대전, 대구의 KBS-TV, MBC-TV 및 지역방송국(TJB, TBC)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방송인 중에서 식생활관련 프로그램을 과거에 담당했었거나 현재 맡고 있는 PD, 기자 및 작가 총 26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제작시 주제에 관한 자문의뢰, 자문가의 전공 고려 여부 등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 2. 식생활관련 TV프로그램의 출연자 구성

아침에 방영되고 있는 주로 여성 대상의 'A' TV방송국의 연속기획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지난 5년(1993년 1월부터 1997년 7월)에 걸쳐 식품, 영양 및 건강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총 361회의 내용을 TV방송국에 보관되었던 방송기록에서 발췌하고, 매회에 출연한 전문가의 전공분야 및 주제와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였다.

### 3. 자료 처리

TV프로그램 제작자의 주제 전문성에 관한 설문지 조사 자료는 빈도수와 백분율, 또는 순위를 알아본 문항은 순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지역간 차이의 유의성은 Chi-square test, 또는 Spearman corre-

lation coefficients의 산출을 통해 검증하였다. TV프로그램의 출연자 구성에 관한 자료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결과 및 고찰

### 1. TV프로그램 제작자의 주제의 전문성에 관한 태도

본 연구의 설문지 조사에 참여한 TV방송국의 PD 또는 기자의 수는 총 26명(남자 19명, 여자 7명)으로써 서울에서 11명(모두 KBS소속), 대전에서 9명(KBS 2명; MBC 4명; 대전방송국TJB 3명) 그리고 대구에서 6명(MBC 4명; 대구방송국TBC 2명)이었다(Table 1). 이들의 직종은 PD 19명, 기자 4명, 작가 3명이었고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의 전공분야는 신문방송 4명, 문학 7명, 사학 3명이었고, 식품가공학, 물리학의 자연과학 전공자도 각 1명씩 있었다. 기타 심리학, 경영학, 행정학 등이었다.

#### 1) 식품영양관련 TV프로그램의 주제 선정 이유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맡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 맡았던 프로그램들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건강하게 삽시다(뉴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오전! 건강백세' '오늘도 좋은 아침' '맛숨씨 멋자랑' 등이었다. 이러한 식품영양관련 TV프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하는 이유 또는 배경으로써 중요한 순서를 알아본 결과 '시청자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의 우선순위가  $1.4 \pm 0.8$ 위로 가장 높았다(Table 2). 두번째 높은 순위로 나타난 주제 선정 이유는 '식생활관련 사건의 발생'이 계기가 되거나 ( $2.3 \pm 1.1$ 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차원'에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TV produc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N(%)

Characteristics	Total	Seoul	Taejon	Taegu	
Subject's number	26(100.0)	11(42.3)	9(34.6)	6(23.1)	
Broadcasting station	KBS	13	11	2	0
	MBC	8	0	4	4
	Local	5	0	3 TJB	2 TBC
Position	PD	19	6	7	6
	Reporter	4	2	2	
	Writer	3	3		
Major field at undergraduate or graduate study	Masscom.	4			
	Literature	7			
	History	3			
	Food-tech.	1			
	Physics	1			
Others	10				

Table 2. Ranks of reasons for selecting the issues of nutrition-related TV programs

Reasons	Total(n=26)	Seoul(n=11)	Taejon(n=9)	Taegu(n=6)
To satisfy the interests and demands of audiences	1.4±0.8	1.6±1.0	1.5±0.8	1.2±0.4 (n=6)
Motivated by food-related accidents	2.3±1.1	2.1±0.9	2.8±1.3	1 (n=1)
To educate people about nutrition for the health promotion	2.4±1.1	2.4±1.1	2.4±1.3	3 (n=1)
To increase the audience rating as amusements	3.8±1.1	3.7±1.1	3.7±1.2	5 (n=1)
To inform the public government policies about food, nutrition and health	4.5±0.6	4.7±0.5	4.4±0.7	4 (n=1)

Mean±SD.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 Seoul vs Taejon ; 0.821, p=0.023

서(2.4±1.1위)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들이 궁금해하는 식생활과 영양관련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장기적 목적을 제작자들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한 TV방송국의 시청자 요구도 조사에 따르면 아침 TV프로그램은 주로 40대 여성의 시청률이 높으며 이들은 건강, 돈, 자녀교육, 취미 오락의 순서로 정보 욕구가 크다고 한다. '시청률 제고를 위해 흥미위주'로 주제를 선정하는 경우는 3.8±1.1위이었는데 방송제작자들이 시청률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매우 낮은 순위이었다. 가장 순위가 낮았던 것은 '정부기관의 영양과 건강 정책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5±0.6위)이었는데 이는 정부 자체에 영양과 건강 정책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정책의 대국민 홍보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 선정 이유의 우선 순위는 지역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식품영양 전문가의 자문에 관한 TV프로그램 제작자의 태도

PD, 기자 등 TV프로그램 제작자들의 대학에서의 전공분야에서 보았듯이(Table 1) 대부분 식품, 영양 및 건강에 대하여는 비전공자들이다. 제작자들의 이러한 주제에 관한 전문성 부족은 방송효과의 역기능적 폐해를 야기시키는 현실적인 중요 요소가 된다(민영목 1997). 전문제작자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의 조언이나 참여를 제작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관하여 TV프로그램 제작자들의 견해와 시행태도를 알아보았다(Table 3). 식품영양관련 주제를 기획, 제작하는 과정에 관련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 제작자의 53.9%가 '항상 한다', 46.1%는 '가끔 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지역간 유의적 차이를 보여(p=0.01) 서울 지역에서는 거의 모두 '항상 자문을 구한다'고 하였으나 대전은 대부분 '가끔 한다'고 답하였고 대구는 '항상'과 '가끔'이 반반이었다. 가끔씩만 전문가 자문을 하는 경우는 때때로 제작자들만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일반적으로 방영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 방송국에서 그 빈도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영양 주제에 대해 자문을 의뢰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식품영양학 교수가 평균 1.1±0.3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위가 영양사(2.9±1.4위), 의사(3.3±1.5위), 한의사(3.4±1.0위)이었다. 보건직종사자와 식품회사관계자는 평균 순위가 4.7~4.9위로 낮았다. 지역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어 식품영양 관련 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선정, 초청한 전문가의 순위가 인식하고 있는 순위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서울과 대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대구는 서울, 대전에 비해 순위가 유의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영양사의 순위가 높고 한의사의 순위가 낮았다.

식품영양학 교수나 영양사의 순위를 낮게 답한 경우 그 이유를 보면 '자문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한 경우가 2명이나 되었다. '타전공자도 잘 할 수 있다'고 답한 경우도(1명) 있었는데 식품영양 주제의 자문에 가장 적합한 전공자로서 의사(서울)나 한의사(대전)를 뽑은 경우도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방송관련자의 무관심과 무지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자문받은 내용이 별로 도움이 안되며'(1명), '자문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

아서'(1명)인 경우는 식품영양학자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자문의뢰할 식품영양학자와 연결이 어려워져서 못한다'에 답한 경우도 2명이나 된다. 이는 방송제작자와 식품영양학자 양쪽의 적극성 부족에 기인할 것이다.

출연자 선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지역 간 차이없이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시청자의 선호도나 출연자의 지명도이었다. 전문성과 지명도를 함께 고려한다가 조사대상 방송제작자의 46.1%로 가장 많았고 전문성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가 38.5%

이었다. 그러나 시청자의 선호도나 출연자의 지명도를 우선 고려하는 경우도 11.5%나 되어 대체로 방송제작자들이 시청자 확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응답한 방송제작자는 대전과 대구에만 있었다. 동시에 식품영양학 전공자들도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함께 대중매체인 방송에 적합한 용어구사 등 담화 기술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방송계 추천, 개인적 친분, 설비가 쉬운 사람으로 선정한다로 답한 경우도 있어(1명, 3.9%) 약간의 문제

**Table 3.** The PD's attitudes toward the consultation with specialists in planning and producing TV programs about food and nutrition

Variables	Total (n=26)	Seoul (n=11)	Taejon (n=9)	Taegu (n=6)	Significance
<i>Seeking the specialist's advices about food and nutrition</i>					
Always	14(53.9) <sup>1)</sup>	10	1	3	$\chi^2=13.39$ df=4, p=0.01
Occasionally	12(46.1)	1	8	3	
Do not	0	0	0	0	
<i>Rank of the specialist who was thought to be the most proper consultant</i>					
Professor in food and nutrition	1.1±0.3 <sup>2)</sup>	1.2±0.3	1.2±0.4	1.0±0.0	Seoul vs Taejon : r=0.900 <sup>3)</sup> , p=0.037
Dietitian	2.9±1.4	3.6±1.8	2.4±0.9	2 (n=1)	
Physician	3.3±1.5	2.6±1.3	4.3±1.4	3 (n=1)	
Physician of chinese medicine	3.4±1.0	3.3±0.8	3.4±1.3	4 (n=1)	
Food industry worker	4.7±1.5	4.6±1.5	4.6±1.7	6 (n=1)	
Public health expert	4.9±0.8	5.1±0.7	4.6±1.0	5 (n=1)	
<i>Rank of the specialist often invited as a panelist</i>					
Professor in food and nutrition	1.4±0.5	1.2±0.3	1.6±0.5	1.4±0.5	Seoul vs Taejon : r=0.786, p=0.036 Seoul vs Taegu : r=0.607, p=0.148 Taejon vs Taegu : r=0.607, p=0.148
Dietitian	2.9±1.3	2.8±1.0	2.6±0.9	3.8±2.1	
Physician	3.1±1.3	2.4±1.5	3.9±1.1	3.0±0.8	
Physician of chinese medicine	3.3±1.6	3.2±1.5	2.9±1.3	4.7±2.1	
Public health expert	4.5±1.6	5.5±1.3	4.3±1.6	3.7±1.5	
Food industry worker	5.4±1.2	4.4±1.3	6.1±0.4	5.7±0.6	
Others	5.5±2.6	6.7±0.6	6.0±2.5	4.0±3.5	
<i>If specialists in food and nutrition were not thought to be the most proper consultant, why?</i>					
Did not know their consultations were necessary	2( 7.7) <sup>1)</sup>	1	1	0	$\chi^2=11.375$ df=8, p=0.181
Other specialists could provide good advices about food and nutrition	1( 3.9)	0	1	0	
Their advices and suggestions were not helpful	1( 3.9)	0	0	1	
They often refused	1( 3.9)	1	0	0	
It was hard to contact with nutritionists	2( 7.7)	2	0	0	
<i>The most important factor as panelists</i>					
Speciality in the topics of the program	10(38.5)	6	2	2	$\chi^2=5.609$ df=6, p=0.468
Preference of audience and being well-known	3(11.5)	0	2	1	
Both speciality and being well-known	12(46.1)	5	4	3	
Easy contact, broadcaster's recommendation, private acquaintance	1( 3.9)	0	1	0	

<sup>1)</sup> Number(%) <sup>2)</sup> Mean±SD <sup>3)</sup>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4.** The specialist's responses to being asked for the consultation about TV program N(%)

Response	Total(n=26)	Seoul(n=11)	Taejon(n=9)	Taegu(n=6)	Significance
<i>All the specialists</i>					
Positive and favorable	16(61.5)	7	5	4	$\chi^2=1.992$ df=8, p=0.737
Neither favorable nor reluctant	9(34.6)	4	3	2	
Reluctant	1( 3.9)	0	1	0	
Dislike	0	0	0	0	
Refuse	0	0	0	0	
<i>Specilists majoring in food and nutrition</i>					
Positive and favorable	11(42.3)	6	2	3	$\chi^2=2.308$ df=8, p=0.315
Neither favorable nor reluctant	15(57.7)	5	7	3	
Reluctant	0	0	0	0	
Dislike	0	0	0	0	
Refuse	0	0	0	0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 3) 자문 위촉시 전문가의 반응

TV프로그램에 관해 자문을 요청할 때 전문가들의 반응은 61.5%가 적극적이고 호의적이라고 하였고 34.6%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4). 그런데 식품영양학 전공자의 반응을 타전공자의 반응과 비교하여 답을 요구한 결과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다소 낮았다. 즉 적극적이고 호의적이 42.3%, 보통이 57.5%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간 차이가 없었으며, 자문받은 내용이 별로 도움이 안되거나 자문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서 식품영양전공자에게 자문의뢰를 못한다는 전술한 결과와 함께 식품영양학자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더욱이 방송국에서는 방영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거의 모두 모니터링 하지만(Table 5)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식품영양관련 전공자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주제 내용을 감시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므로 매스 미디어를 통해 나가는 잘못된 영양정보의 파급효과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영양교육자로서 올바른 영양교육을 위해 방송국의 자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 4) 학계에 건의사항

조사대상 PD, 기자에게 학계에 건의할 사항을 자유로이 기록하게 한 바 다음과 같은 요구가 있었다. ① 영양관련 연구내용이나 기타 정보를 방송계에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홍보(3명) ②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양 정보를 제시(3명) ③ 전문적 지식을 일반 대중이 알기 쉽게 전달(2명) ④ 대중

**Table 5.** Followed-monitoring after broadcasting the nutrition-related TV programs N(%)

Variables	Total(n=26)
<i>Monitoring</i>	
Do	23(88.5)
Do not	1( 3.8)
Do not, but need to	1( 3.8)
No response	1( 3.8)
<i>Who monitor?</i>	
Food and nutrition experts	1( 3.8)
Others	22(84.6)
No response	3(11.5)

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TV프로그램을 적극 활용(2명) ⑤ 식품영양학 교수와 영양사의 적극적인 출연과 협조(2명)

이러한 학계에 대한 지적이나 요구 사항들은 영양학자들도 이미 공감하고 있는 것들이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영양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TV 등의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는 교육매체의 개발도 영양학 전공자의 역할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 부터 대학에서 노인을 비롯해 영양취약군을 대상으로 TV쇼, 광고캠페인, TV게임쇼, 요리강습의 연속기획 등을 제작하고, 방영 후 효과평가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었다(Fitzgibbons & Garcia 1977; Goldberg 등 1989; Ross 등 1986; Shannon 등 1979; Wolczuk 1973).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에 처음으로 미국 민간원조단체인 CARE주관으로 KBS 라디오의 스포트 방송(spot announcement)으로 전국의 일반 대중을 위한 영양교육이 실시된 적이 있다(Higgins & Montague 1972). 10개월간 매일 30초 동안 쌀에 지나

치게 편중된 식사를 균형된 식사로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방송전의 기초조사 자료가 없었으나 10개월간 방송 후 면접으로 효과를 평가한 결과 면접대상자의 83%(도시), 68%(농촌)가 균형된 식사와 혼식에 관한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TV를 포함하여 어떤 종류의 미스 매디어를 이용하는 영양교육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어 매스 미디어를 교육매체로써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미국의 영양학회와 임상영양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PIC(public information committee)나 영양사회의 Spokesperson 제도(과거의 Ambassadors제도)같이 영양전문가와 방송계의 협력기구를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다(윤진숙 1998; McNutt 1990). 이러한 협력체계를 통하여 영양학계에서는 방송제작자에게 시의적절하며 새롭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제공하고 방송계의 요구시 주제에 따라 방송출연에 적합한 전문가도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송계에서도 미국의 PSAs(public service announcements; Ferris-Morris 등 1995)와 같은 공익방송시간을 마련하여 영양학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영양교육의 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써 정보화 사회의 국민 영양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

## 2. 식생활관련 TV프로그램의 출연자 구성

1993년 1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지난 4년 7개월간 방영된 TV프로그램의 총 방영횟수는 1,190회이었으며, 이 중에서 식품, 영양 및 건강관련 내용은 총 361회로써 약 30%가 되었다.

### 1) 방영 내용의 주제별 분포

방영 내용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식품과 영양소, 질병, 요리, 식습관과 건강전반, 식품위생과 안전성의 5가지로 분류하고 주제에 따른 방영횟수를 연도별로 제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총 방영횟

수 361회 가운데 식품과 영양소에 관한 내용이 171회(47.4%)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도 92회(25.5%) 방영하여 두 가지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요리는 39회(10.8%), 식습관과 건강전반은 38회(10.5%)로 비슷한 방영횟수를 나타냈으며 식품위생과 안전성은 21회(5.8%)로써 다른 주제에 비해 매우 적었다.

연도별 주제의 분포와 추이를 보면, 식품과 영양소에 대한 방영 비율은 1993년, 1994년에는 50% 이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었는데 질병은 연도별로 모두 20%를 넘고 있어 꾸준한 관심을 나타냈다. 요리에 관한 내용의 방영횟수는 특히 1993년에는 1회이었는데 1996년에는 15회(20.3%)로 다른 해에 비해 높았다. 식습관과 건강전반에 관한 방영 비율은 한 해걸러 들쭉날쭉하여 1993년 13.8%, 1996년 6.8%, 1997년에는 다시 17.1%로 방영횟수가 증가하였다. 식품위생과 안전성에 관하여는 대체로 매우 적었는데 1996년 7회(9.5%) 방영되어 점차 증가추세로써 환경오염, 식품 수입 등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 2) 출연한 전문가의 주제별 구성과 분포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의 구성 및 분포를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식생활과 관련된 총 361회 방영에 출연한 전문가의 수는 모두 1,043명으로 1회에 평균 2.9명(1~7명)의 전문가가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출연자 1,043명이 각기 다른 사람은 아니고 동일인이 여러번 출연한 경우도 많았으며, 전문가를 방송국에 초빙하지 않고 외부에서 조언내용을 촬영하여 방영하거나(ENG) 전화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연자는 전공이나 종사하고 있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 따라 식품영양학 교수, 식품가공학 관련 교수, 보건학 교수, 그외 다른전공 교수, 영양사, 요리 전문가, 의사 및 의대교수, 한의사, 정부기관 관계자, 기업이나 사설 연구소 관계자, 각종 단체, 기타의 12개로 분류하였다. 식품영양학 교수에는 가정학, 전통조리학 교수도

Table 6. Classified issues of nutrition-related contents of the TV show

N(%)

Issues	'93	'94	'95	'96	'97	Total
Food and nutrient	50 (53.2)	43 (57.3)	36 (43.4)	25 (33.8)	17 (48.6)	171 (47.4)
Disease	25 (26.6)	17 (22.7)	21 (25.3)	22 (29.7)	7 (20.0)	92 (25.5)
Dishes or cookery	1 ( 1.1)	10 (13.3)	10 (12.0)	15 (20.3)	3 ( 8.6)	39 (10.8)
Food habit and general health	13 (13.8)	4 ( 5.3)	10 (12.0)	5 ( 6.8)	6 (17.0)	38 (10.5)
Food sanitation and safety	5 ( 5.3)	1 ( 1.3)	6 ( 7.2)	7 ( 9.5)	2 ( 5.7)	21 ( 5.8)
Total	94(100.0)	75(100.0)	83(100.0)	74(100.0)	35(100.0)	361(100.0)

Table 7. Distribution of the panelists invited to the TV show according to the issues N(%)

Specialist	Food and nutrient	Disease	Cookery	Food habit and general health	Food sanitation and safety	Total
<b>Professors</b>						
in food and nutrition	64 (12.2)	17 ( 6.8)	12 (11.1)	7 ( 8.6)	3 ( 3.8)	103 ( 9.9)
public health	7 ( 1.3)	0 ( 0.0)	3 ( 2.8)	6 ( 7.4)	0 ( 0.0)	16 ( 1.5)
food processing	42 ( 8.0)	4 ( 1.6)	5 ( 4.6)	5 ( 6.2)	6 ( 7.5)	62 ( 5.9)
other major	25 ( 4.8)	3 ( 1.2)	2 ( 1.9)	2 ( 2.5)	4 ( 5.0)	36 ( 3.5)
Dietitian	10 ( 1.9)	15 ( 6.0)	1 ( 0.9)	4 ( 4.9)	1 ( 1.3)	31 ( 3.0)
Cook	85 (16.2)	8 ( 3.2)	36 (33.3)	12 (14.8)	1 ( 1.3)	142 (13.6)
Physician & medical professor	46 ( 8.8)	130 (52.0)	5 ( 4.6)	16 (19.8)	15 (18.8)	212 (20.3)
Physician of Chinese medicine	66 (12.6)	35 (14.0)	15 (13.9)	14 (17.3)	1 ( 1.3)	131 (12.6)
Government officials	44 ( 8.4)	0 ( 0.0)	3 ( 2.8)	0 ( 0.0)	17 (21.3)	64 ( 6.1)
Persons related to food companies or private research institutes	31( 5.9) <sup>a</sup>	3 ( 1.2)	2 ( 1.9)	2 ( 2.5)	2 ( 2.5)	40 ( 3.8)
	9( 1.7) <sup>b</sup>	5 ( 2.0)	3 ( 2.8)	4 ( 4.9)	2 ( 2.5)	23 ( 2.2)
Workers at some organizations	48 ( 7.8)	20 ( 8.0)	7 ( 6.5)	3 ( 3.7)	17 (21.3)	95 ( 9.1)
Others	47 ( 9.0)	10 ( 4.0)	14 (13.0)	6 ( 7.4)	11 (13.8)	88 ( 8.4)
Total	524(100.0)	250(100.0)	108(100.0)	81(100.0)	80(100.0)	1043(100.0)

<sup>a</sup> Related to food and nutrition

<sup>b</sup> The others

포함되었고, 식품가공학 관련교수에는 식품공학, 농업생명과학, 미생물학, 식품효소학, 낙농학, 식품생물공학, 식품생명학 교수도 포함되었다. 정부기관 관계자에는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환경부의 공무원이나 국립보건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산하기관 관계자가 포함되었다. 이 외에 기업이나 사설연구소 관계자에는 식품영양 관련기업의 연구소와 기타 사설 연구소가 포함되었고 단체에는 농협, 축협, 수협 또는 시민의 모임과 환경운동연합 등 다양한 단체의 관계자들이 포함되었다.

출연한 전문가 총 1,043명 가운데 의사 및 의대교수는 2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요리전문가 13.6%, 한의사 12.6%이었으며, 식품영양학 교수는 9.9%, 영양사는 3.0%에 불과하였다. 식품영양관련 연구소 관계자는 3.8%, 기타 연구소 관계자 2.6%이었고, 각종단체의 출연자 9.1% 가운데 농협·축협·수협관계자는 1.2%,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1.0%, 한국소비자보호원 0.6%이었다. 이 외에 기타로 분류된 출연자들은 너무 다양하여 비율이 커도 별 의미는 없다.

#### (1) 식품과 영양소

식품과 영양소와 관련하여 출연한 전문가는 모두

524명으로써, 이 중에서 요리전문가는 16.2%, 한의사 12.6%, 식품영양학교수 12.2%, 의사 및 의대교수 8.8%, 정부기관 관계자 8.4%, 식품가공학 관련교수 8.0%이었다. 식품이나 영양학 전공자인 식품영양학 교수, 식품가공학 관련교수와 영양사의 수를 합해보면 모두 22.1%로 다른 전문가에 비해 많이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식품과 영양소에 관한 방영횟수 171회와 비교해볼 때 평균 1회당 식품영양학 전공자는 0.7명으로 적은편이어서 식품이나 영양학 전공자 대신 요리전문가나 한의사 또는 의사 등이 식품과 영양소 주제에 대한 전문가로 출연한 경우도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연도별로 출연한 전문가의 구성을 비교하면 (Table 8) 식품영양학과 교수, 식품가공학 관련교수, 영양사 등 식품과 영양학 전공자의 출연율이 20%정도를 유지하다가 1997년에 41.4%로 증가하였다. 1997년은 7개월만 조사한 것이긴 하지만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주제에 대해 전공자의 전문성을 점차 고려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 (2) 질병

질병과 영양이란 주제와 관련하여 출연한 전문가는 Table 7과 같이 250명으로 총 출연한 전문가 1,043명



**Table 8.** Annual distribution of the panelists when the issues of the TV show was food and nutrient or disease N(%)

Specialist	1993	1994	1995	1996	1997	Total
<b>&lt;Food and nutrient&gt;</b>						
Professors						
in food and nutrition	20 (12.2)	21 (15.9)	8 ( 6.3)	8 (11.8)	7 (20.6)	64 (12.2)
public health	1 ( 0.6)	2 ( 1.5)	3 ( 2.4)	1 ( 1.5)	0 ( 0.0)	7 ( 1.3)
food processing	8 ( 4.9)	6 ( 4.5)	15 (11.9)	7 (10.3)	6 (17.6)	42 ( 8.0)
Dietitian	5 ( 3.0)	3 ( 2.3)	1 ( 0.8)	0 ( 0.0)	1 ( 2.9)	10 ( 1.9)
Cook	14 ( 8.5)	25 (18.9)	27 (21.4)	12 (17.6)	7 (20.6)	85 (16.2)
Physician & medical professor	24 (14.6)	11 ( 8.3)	3 ( 2.4)	7 (10.3)	1 ( 2.9)	46 ( 8.8)
Physician of chinese medicine	19 (11.6)	20 (15.2)	18 (14.3)	7 (10.3)	2 ( 5.9)	66 (12.6)
<b>&lt;Disease&gt;</b>						
Professors						
in food and nutrition	4 ( 6.3)	2 ( 4.9)	4 ( 6.9)	5 ( 6.9)	2 (12.5)	17 ( 6.8)
health pubic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food processing	2 ( 3.2)	1 ( 2.4)	0 ( 0.0)	1 ( 1.4)	0 ( 0.0)	4 ( 1.6)
Dietitian	8 (12.7)	3 ( 7.3)	4 ( 6.9)	0 ( 0.0)	0 ( 0.0)	15 ( 6.0)
Cook	1 ( 1.6)	2 ( 4.9)	1 ( 1.7)	2 ( 2.8)	2 (12.5)	8 ( 3.2)
Physician & medical professor	36 (57.1)	23 (56.1)	32 (55.2)	29 (40.3)	10 (62.5)	130 (52.0)
Physician of chinese medicine	3 ( 4.8)	5 (12.2)	7 (12.1)	19 (26.4)	1 ( 6.3)	35 (14.0)

의 24.0%를 차지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의사 및 의대교수가 52.0%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사 14.0%, 식품영양학 교수 6.8%, 영양사 6.0% 순이었다. 의사 및 의대교수는 방영횟수 1회당 평균 1.4명이 출연하여 질병과 영양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러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서 영양과 식사요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영양학교수와 영양사는 평균 1회당 0.3명으로 매우 저조한 출연율을 나타냈다. 연도별로 출연한 전문가의 구성을 보면(Table 8) 식품영양학 교수의 출연율은 6%정도를 유지하다가 1997년에 12.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영양사의 참여가 점차 감소하여 1996년부터는 하나도 없었다. 이는 질병과 영양에 대한 내용에서 영양관리나 식사요법의 내용이 약화되거나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의사나 한의사가 대신 설명하였음을 의미한다.

### (3) 요 리

음식 또는 요리와 관련하여 출연한 전문가는 108명으로 총 출연한 전문가 1,043명의 10.4%를 차지하였다. 이들 중에서 요리전문가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사 13.9%, 식품영양학 교수 11.1% 순이었다. 요리의 조리방법이나 요리시범에 대한 설명은 요리전문가가 주로 담당하였고 요리의 영양소 설명은 식품영양

학 교수외에도 요리전문가나 한의사가 담당한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 (4) 식습관과 건강전반

식습관과 건강전반에 관한 주제로 출연한 전문가는 7.8%로써 1회 방영에 평균 2.1명의 전문가가 출연하여 5가지 주제가운데 출연한 전문가의 수가 가장 적었다. 이들 가운데 의사 및 의대교수가 19.8%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는 17.3%, 요리전문가 14.8%, 식품영양학 교수 8.6%, 보건학 교수와 기업이나 사설연구소 관계자가 각각 7.4% 순이었다.

### (5) 식품위생과 안전성

식품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방영횟수는 전체의 5.8%로써 출연한 전문가는 평균 1회 방영에 3.8명이 출연하였다. 이들은 정부기관 관계자와 각종단체 관계자가 21.3%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및 의대교수도 18.8%, 식품가공학 관련교수 7.5% 순으로 구성되었다.

### 3) 출연한 전문가의 구성상 문제점

전문가 총 1,043명이 361회의 방영에 출연하였는데, 이들의 전문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 나타난 문제점은 Table 9와 같다. 361회 방영중 출연한 전문가의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전문성과 신뢰성이 저하되었던 경우

**Table 9.** Undesirable cases of the panelist constitution of the TV program 'Ask everything!'

Undesirable cases	N (%)
On the issue of disease, a nutritionist was not invited and diet therapy or nutritional care was not discussed	26 ( 57.8)
Instead of a nutritionist, a physician or a physician of Chinese medicine explained diet therapy	13 ( 28.9)
Instead of a nutritionist, a physician or a physician of Chinese medicine explained food, nutrient, or dietary habit	6 ( 13.3)
Total	45 (100.0)

는 모두 45회로 총 361회에 대해 12.5%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나타난 문제점은 질병과 영양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영양관리나 식사요법이 꼭 필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식품영양학 전공자는 출연하지 않고 의사 또는 한의사만 출연함으로써 영양관리나 식사요법내용이 약화되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던 경우가 총 45회(100.0%) 가운데 26회(57.8%) 있었고 또한, 영양관리나 식사요법 내용은 있는데 식품영양학 전공자가 출연하지 않아서 의사나 한의사가 대신 설명하는 경우가 13회(28.9%)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언론모니터 활동보고서(대한영양사회 1995~1996)에서도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식품과 영양소의 주제에서도 식품영양학 전공자없이 의사나 한의사가 주로 설명한 경우도 2회(4.4%) 있었고 식습관과 건강전반에 대한 주제에서도 식품이나 영양학 전공자 없이 의사나 한의사가 설명하는 경우도 4회(8.8%)로 나타났다.

실례로 '장세척'에 대한 주제에서 숙변, 장세척방법, 섬유질의 역할, 예방 식습관과 식이요법, 운동요법의 내용을 다루었는데 단지 내과 의사 1명과 장세척 전문의 1명만 출연하여 영양전문가없이 질병의 예방식습관이나 식사요법 내용이 설명되었다. '침묵의 여왕 간의 잘못된 상식과 건강을 파헤친다'에서는 내과 의사 2명과 기체조전문가 1명이 출연하여 간의 대한 건강상식, 간 기능저하, 간질환, 간 건강유지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간 질환의 영양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중풍(뇌졸중)의 예방과 치료'에서는 신경외과 의사 1명과 한의사 1명이 출연하여 중풍과 추위와의 관계, 뇌출혈, 뇌경색 증상과 위험성, 중풍의 치료와 운동, 중풍과 음식을 설명하였는데 여기에는 식품영양학 전공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중풍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를 담당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키 10cm 더 키울 수 있다'에서 의사 1명과 한의사 2명이 출연하여

성장기 아이들의 키를 크게하는 식품을 소개하였고, '아침밥 먹어야 하나?'에서는 소화기내과 의사 1명만이 출연하였다.

이 외에는 대체로 주제별 출연한 전문가의 구성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실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영양만점, 쌀이 보약-모르고 있던 쌀 건강법'에 조선왕조 음식 무형문화재 1명, 식품영양학교수 1명,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관계자 1명, 요리연구가 1명, 쌀가공연구가 1명이 출연하였다. '먹고 고치는 고혈압, 당뇨병'에 순환기내과교수 1명, 한국보건영양연구소 1명, 영양사 1명,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운동처방실에서 1명이 출연하였다. 또한 '식중독 비상, 우리는 안전한가?'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 감염내과 의사 1명, 식품생물공학과 교수 1명, 보건복지부 방역과 공무원 1명, 시민의 모임 관계자 1명이 출연하였다.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일수록 일반 시청자가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식생활, 영양에 관한 지식이 낮을수록 논제의 초점이 빗나가거나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하거나 어렵게 설명하고 무리한 표현을 쓰거나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릴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TV프로그램 제작자들도 이 점을 잘 인식하여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를 제작에 참여시켜야 방송내용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및 요약

식생활관련 TV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영양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식생활관련 TV프로그램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서울, 대전, 대구 지역 TV방송국의 PD와 기자 총 26명을 대상으로 주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작자 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A' TV방송국의 연속 기획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방송된 식생활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문가의 전공별 구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생활관련 TV프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하는 이유는 시청자의 관심과 정보욕구의 충족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식생활관련 사건의 발생이 계기가 되거나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차원이었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시 관련전문가에게 자문은 항상(53.9%) 또는 가끔(46.1%) 하고 있었다. 영양관련 주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프로그램에 초청한 전문가는 식품영양학 교수가 우선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영양사, 의사, 한의사 순이었다. 그러나 의사나 한의사를 제1위로 꼽거나, 식품영양학 전공자에게 자문할 필요성을 모르고 있거나 타전공자도 식품영양에 관해 조언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에는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동시에 시청자의 선호도나 출연자의 지명도가 가장 먼저 고려되었으며(47%) 시청자의 선호도나 출연자의 지명도를 전문성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도 11.5%나 되었다. 자문 위촉시 식품영양학 전공자들은 타전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다소 낮았다.

출연한 전문가의 수는 모두 1,043명으로 1회에 평균 2.9명이 출연하였고 의사 및 의대교수가 20.3%로 가장 많았으며, 요리 전문가 13.6%, 한의사 12.6%, 식품영양학 교수 9.9%, 영양사 3.0% 이었다. 식품과 영양소의 주제에 대한 방송에 출연한 식품영양학관련 전공자가 22.1%이며 전문가가 1회당 평균 3.1명이 출연하였는데 이중 0.7명이 식품영양학 전공자이었다. 질병과 영양의 주제에서는 의사, 한의사가 66%이었고 식품영양학 전공자는 12.8%로써 1회 방영당 0.3명에 불과하였다. 요리의 주제에는 요리전문가가 33.3%, 한의사 13.9%, 식품영양학 교수 11.1% 순이었고 식습관과 건강전반에 관한 주제로 출연한 전문가는 의사, 한의사 37.1%, 요리전문가 14.8%, 식품영양학 교수 8.6%, 보건학 교수 7.4% 순이었다. 식품위생과 안전성에 대하여는 정부기관 및 각종 단체 관계자가 각각 21.3%, 의사 18.8%, 식품공학 관련교수 7.5%이었다. 출연한 전문가의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전문성과 신뢰성이 저하되었던 경우는 모두 45회로 총 361회에 대해 12.5%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때 많은 프로그램제작자들이 식생활 주제를 다룰때 식품영양전공자에게 자문의뢰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식품영양전공자를 토론자로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비율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식품영양학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낮

은 PD도 적지 않으며 식품영양학 전공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부족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식품영양학자와 방송계 모두의 노력이 요구 된다. 즉 영양학자들은 TV 등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는 교육매체의 개발과 영양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방송계에서도 식품영양학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고 공익방송 시간을 마련하여 영양학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영양교육의 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양전문가와 방송계의 협력기구를 마련하여 영양학계에서는 방송제작자에게 시의적절하며 새롭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제공하고 방송계의 요구시 주제에 따라 방송출연에 적합한 전문가도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주제와 부합되는 전문가의 출연이 이루어지고 방송내용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며 정보화 사회의 국민 영양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

#### ■ 감사의 글

저자들은 KBS 라디오방송국의 박현순 PD, KBS TV의 이양구 PD, 김시연 PD께 자료 수집에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참고문헌

- 김기태(1998) : 대중매체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 한국영양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pp. 8-13
- 김초일(1998) : 영양관련 보도의 현실. 한국영양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pp.14-16
- 김희섭(1996) : 텔레비전 식품광고에 관한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4) : 507-515
- 남정자 · 최정수 · 계훈방(1995) : 한국인의 보건의식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5-26, pp.128-129.
- 대한영양사협회(1995, 1996, 1997) : 언론모니터 활동보고서.
- 민영목(1997) : 식생활관련 불건전한 방송사태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대한영양사협회 모니터링교육자료집, pp.9-16
- 윤진숙(1998) : 올바른 영양정보 보급을 위한 대중매체 : 전문가와 정부의 역할. 한국영양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pp.17-21
- 이정원(1998) : 매스 미디어와 영양교육. 영양교육과 상담 (박영숙, 이정원, 서정숙, 이보경, 이혜상 공저), pp.348-369, 교문사, 서울
- 최정호 · 강현두 · 오택섭(1995) : 매스미디어와 사회, 나남출판
- Ferris-Morris M, Kraak V, Pelletier DL(1995) : Using com-

- munication to improve nutrition-relevant decision-making in the community. In : CBNM Communication Manual, Division of Nutritional Sciences, Cornell University, pp.94-114
- Fitzgibbons JJ, Garcia PA(1977) : TV, PSAs, Nutrition and the elderly. *J Nutr Edu* 9(3) : 114-118
- Goldberg JP, Gershoff SN, McGandy RB, Hartx SC(1989) : The effectiveness of TV quiz show in providing nutrition information to the elderly. *J Nutr Edu* 21 : 86-89
- Higgins M, Montague J(1972) : Nutrition education through the mass media in Korea. *J Nutr Edu* 4 : 58-62
- McNutt K(1990) : Partnerships with the media - How journalists and nutritionists can help each other. *Nutr Today* : 41-43
- Ross DC, Singletary LA, McLeod MH(1986) : Using a TV game show format to teach head start staff. *J Nutr Edu* 18 : 74A
- Shannon B, Thurman G, Schiff W(1979) : FOOD\$ENSE - A pilot TV show on nutrition issues. *J Nutr Edu* 11(1) : 15-18
- Wolczuk P(1973) : The senior chef. *J Nutr Edu* 5(2) : 142-144